

#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oss-Reference System based on Bibliographic Relations

이 양 숙(Yang-Sook Lee)\*

김 태 수(Tae-Soo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4. 1 참조레코드 형식       |
| 2. 표목 및 상호참조의 기능        | 4. 1. 1 설계원칙        |
| 2. 1 표준표목의 기능           | 4. 1. 2 참조레코드의 구조   |
| 2. 2 목록규칙에서 상호참조의 기능    | 4. 1. 3 참조레코드의 생성   |
| 2. 3 현행 전거제어시스템에서의 상호참조 | 4. 2 참조DB의 생성       |
| 3. 서지적 관계유형과 상호참조       | 4. 2. 1 저자명참조DB     |
| 3. 1 서지적 관계유형           | 4. 2. 2 서명 및 관계참조DB |
| 3. 2 서지적 관계유형의 연결장치     | 4. 3 참조시스템을 통한 검색과정 |
| 4. 참조시스템의 구축            | 5.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을 연결하고, 특정 저자의 상이한 이름이나 특정 저작의 상이한 서명을 직접 접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거표목을 배제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접근점과 그 이형(異形)에 대한 참조와 이들간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레코드의 형식을 개발하여 참조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통적인 표목 및 상호참조의 기능을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 ABSTRA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cross-reference system as syndetic device to provide bibliographic relations and to collocate variant access points through references, by developing a reference record format. To this end, the method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s of references, which have long been used in traditional records, have been reviewed. Second, ways in which references are depicted not only by current cataloging rules but also by authority control systems are examined.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ference recor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f variations either of an author name or of a title are made, or any related works are published, only a single reference record is created. This record uses existing authority records, and instead of adopting authority headings, it will expand the function of the explanatory reference as well as newly implementing a relational reference which can later be used as a reference record. 2) All the variations of identical personal or group names and of titles are dealt as one access point. In place of current 'see' and 'see also' references, not drawing lines between authority heading(1XX field), 'see'(4XX field) and 'see also' reference(5XX field), all forms of names will be simply applied to record field '1XX'. 3) Any form of data elements, which are used as access points, will be described in '1XX' which has equal value. When a need arises to explain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access points, it can be met by applying the general explanation reference-name(666 field). Similarly, when there is a need to articulat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etween related works, they will be suggested through the title and relational reference. 4) The title and relational reference regulates related terms that each relation type contains its field, according to each relational type, by reclassifying entire fields in order to provide direct bibliographic relation types on reference records. 5) Pointers which are connected to each access point present reference control numbers.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계장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9년 10월 22일

## 1. 서론

목록은 저자나 서명, 주제명과 같은 데이터 요소를 접근점으로 하여 특정 저작을 검색하고, 관련된 문헌간을 연결하여 이들 문헌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특정 저작은 상이한 문헌이나 마이크로 형태, CD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발행되는 것은 물론, 동일 저작이 번역되거나 판을 달리하여 발행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저자는 매체에 따라 이름의 형식을 달리할 수 있고, 상이한 저자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특정 저작이 상이한 서명으로 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이한 매체로 표현된 관련 저작간에 일정한 서지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록에서는 서지적 관계유형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관련 자료간을 연결하기 위해 표목의 형식과 기술요소, 참조 등을 혼용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적용기법에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기술환경에서는 표목의 표준형식을 인정하지 않고도 상이한 이름 상호간을 연결할 수 있고, 서지적으로 관련된 표목을 직접 연결하게 되면 목록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정 저작의 모든 저작을 집중하고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장치의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전거제어시스템에서도 전통적인 상호참조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표목의 표준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목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기본표목이나 전거표목을 선정하는 대신, 특정 저자나 서명에서 모든 상이한 형식을 동등한 접근점으로 처리하고, 관계참조나 설명참조와 같은 참조의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서지적 관계유형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상호참조의 기능을 검토하고,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을 집중하는 연결장치로서 참조레코드 형식을 제안하여 참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2. 표목 및 상호참조의 기능

### 2.1 표준표목의 기능

현행 전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표준표목을 선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형식은 참조를 통해 연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표목을 중시하게 된 주 요인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표목의 선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표목을 채택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이용자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저작의 집중기능에서도 부출표목이나 참조가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1) 특정 문헌을 검색하는데 있어 기본표목은 하나의 접근점일 뿐이며, 부출표목도 기본표목과 대등한 기능을 수행한다. 2) 특정 저작의 집중기능은 기본표목만의 기능이 아니라 부출표목과 참조, 주기도 대등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에서 기본표목의 역할

은 단지 부분적인 것으로, 표목의 형식과 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현행 목록체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표목을 사용하더라도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본표목이란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더라도, 저록간의 연결수단이 강구된다면 목록의 기능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김태수 1995, 22).

반면에 표목과 상호참조간의 논리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저록에 기술된 저작의 속성(예: 저자명 또는 서명)을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속성의 다른 형식간을 연결한 것이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표목은 주로 저작의 검색기능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참조는 표목의 집중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Svenonius 1996, 5-6).

이상에서와 같이 목록에서 특정 저작의 검색수단으로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은 동등한 접근점이며, 특정 저작의 저작과 특정 저작의 제판을 집중하는데 있어 참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형식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편 현행 전거레코드에서도 전거표목과 그 형식을 결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전거업무가 복잡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서지레코드에서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듯이 전거레코드에서 전거표목을 채택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온라인목록에서는 이론상 모든 데이터요소가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표목과 부출표목간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관련 서지레코드를 연결할 수 있어, 특정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록작성 과정이 단순화되어,

결과적으로 특정 형식을 우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Bregzis 1982, 24).

게다가 전거표목을 배제함으로써 1) 전거의 채택과 정합성의 검증에 드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2) 서지 및 전거포맷이 단순하여 입력이 편리하고, 3) 색인파일의 관리가 단순해지고 기억영역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컴퓨터 자원을 절감할 수 있고, 4) 각종 서지데이터의 통합이 용이하고, 5) 자연언어-제어어휘 혼합시스템의 구축이 쉬워진다(최석두 1993, 260).

## 2. 2 목록규칙에서 상호참조의 기능

상호참조에 관한 규정은 파니찌 규칙 이전에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은 없었으며, 카터의 사전체목록(Cutter 1904)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1491년에서 1497년 사이에 편찬된 St. Augustine 도서관 목록에서 처음으로 중세목록의 상호참조의 유일한 예로 보이는 상호참조시스템이 발견되었다. 이 목록에서 상호참조는 항상 “non hic quia infra”나 “non hic quia supra”라는 문구로 시작되며, 복잡하지만 어떤 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본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다(Norris 1939, 114-116, 123).

그러나 상호참조 자체는 아니지만 1400-1412년 경에 Amplonius Ratnick de Berka에 의해서 편찬된 목록에서는 일종의 내용주기에 추가하여 동일한 단어가 있는 다른 도서로 안내하는 것으로 현재의 분출저록에 가까운 참조를 볼 수 있다(지촌상부 1972, 86).

그후 1620년 보들레이(Bodleian) 목록규칙 중에 Quare 즉, 보라를 의미하는 문자 'Q' 로 시작하는 상호참조를 규정하였으며(Norris 1939, 148), 1674년 판에서는 역자와 저작물의 저자를 상호참조하였다(151). 이와 같이 15-17세기에도 상호참조라는 용어가 통용은 되었으나, 오늘날의 부출저록이나 분출저록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상호참조에 관한 규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1841년 Anthony Panizzi의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이다(Braut 1972, 85-89; Carpenter, and Svenonius 1985, 3-14).

이 규칙에서는 책자목록의 규모와 관련된 경제적인 제약과 카드목록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서지자료를 하나의 "저록"으로 만 완전히 기술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완전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파니찌 규칙 이후 상호참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의 두 개의 범주로 발전하였으며, 1941년 규칙에서부터 참조에 대한 규칙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참조와 더불어 설명참조가 출현하였다.

1876년 카터의 규칙 초판에서는 첫 번째 용어 아래 표목이 없는 경우에는 "보라참조"를 사용하고, 표목이 있는 경우에는 "도보라참조"를 사용하도록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참조를 제시하였다. 이 초판에서는 주제명표목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도보라참조를 사용한 반면, 4판(1904)에서는 상이한 철자의 성을 지닌 이름간을 연결하는데 도보라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1908 목록규칙에서는 이 도보라참조를 확장하였다(Tillett

1987, 93-94에서 재인용).

그런데 1901년 LC의 인쇄목록카드의 배포와 함께, 목록구조에 전반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인쇄카드의 사용을 통해 협동목록과 표준화의 필요에 따라 부출저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인쇄카드목록의 출현으로 도입된 부출저록은 기술대상인 서지자료에 대한 부차적인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상호참조는 상이한 이름표목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발전되었다. 즉, 참조는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름 형식에서 채택된 이름 형식으로 이용자를 안내하는 도구였다(Tillett 1987, 99).

1902년의 ALA 규칙 (Advance Edition)이 부출저록을 언급한 첫 번째 규칙이었으나, 1904년 카터가 그의 규칙 4판에서 비로소 "부출저록"을 정의하였다. 실제로 초기의 목록규칙은 부출저록과 상호참조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부출저록과 상호참조의 사용기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는 현행 목록규칙(AACR2R)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ALA1949에서 참조는 다수의 표목으로부터 채택된 표목으로 안내하거나(보라참조), 관련된 다른 표목을 지시하는(도보라참조)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도 도보라참조는 대개 주제명표목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참조의 유형이나 참조의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개인명, 단체명, 서명을 참조 대상으로 하고,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이름-서명참조와 더불어 처음으로 설명참조를 사용하였으며, 부출저록과 참조를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AACR(ALA 1967)에서는 참조대상을 개인명, 단체명, 법률관계 출판물에 대한 특수 표목, 통일서명, 종합서명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출저록 대신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의 종류로는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저자-서명참조, 설명참조 등이 있다.

그밖에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에 대해 동일한 부출저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출저록 대신 참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참조와 부출저록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러한 혼란은 현재의 AACR2(ALA 1988)까지 계속되고 있다.

AACR2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호참조에 관한 것을 총망라하여 참조의 대상을 크게 개인명, 지명과 단체명, 통일서명으로 구분하였다. 참조의 종류로는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이름-서명참조, 설명참조의 4가지로 구분하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목록규칙과 같은 참조의 기능을 지니며, 이름-서명 참조와 설명참조는 이용자들의 자료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ACR2가 AACR1과 다른 점은 개인명에 도보라참조를 추가하였으며, 서명과 관련하여 모두 통일서명의 유형으로 처리하여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설명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AACR1에 비해 도보라참조에 관한 규정이 확대되었다.

결국 현행 목록규칙(AACR2)에 이르기까지, 참조는 특정 저자명이나 서명이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되더라도 동일한 접근점으로 사

용하기 위한 연결기능을 기본기능으로 하며, 이를 통해 특정 저작의 검색과 관련 저작의 집중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2. 3 현행 선거제어시스템에서의 상호참조

선거제어는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인명과 단체명, 서명, 주제명을 대상으로, 각각 그 표준형식을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명칭을 하나의 접근점으로 사용하여 관련된 문헌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동일 저자나 저작이 상이한 문헌에서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각각의 관련된 표목들을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선거제어 방식은 상당 부분 전통적인 참조방식을 이어받았으며, 실제로 선거제어시스템에서 선거레코드의 필수 구성요소는 선거표목(이름, 또는 통일표목, 총서명, 또는 주제명), 상호참조(표목이 상호참조를 생성한다면), 이름 및 총서 선거레코드에 대한 정보원으로 구성된다(Clack 1990, 35). 선거제어 영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선거업무는 표목과 적절한 상호참조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충돌을 해결해 왔다.

USMARC 선거레코드(LC 1993)에서 동일 인명과 단체명의 상이한 형식, 동일 저작의 상이한 서명을 연결하고 있는 수단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동일 인명과 동일 단체, 동일 저작의 상이한 이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1XX 필드에서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

〈표 1〉 USMARC 전거레코드의 연결수단

태그	동일인의 이형이름		동일단체의 이형이름		동일저작의 이형이름	
	필드	데이터요소	필드	데이터요소	필드	데이터요소
1XX 표목	100	개인명	110	단체명	130	통일서명
			111	회의명		
4XX 보라참조	400	개인명	410	단체명	430	통일서명
			411	회의명		
5XX 도보라참조	500	개인명	510	단체명	530	통일서명
			511	회의명		
7XX 채택표목연계기입	700	개인명	710	단체명	730	통일서명
			711	회의명		

일서명과 같은 전거표목을 기술하고, 4XX 보라참조, 5XX 도보라참조, 7XX 채택표목연계기입을 통해서 관련 표목을 연결하고 있으며, 4XX와 5XX 이름 필드에서 생성된 상호참조로서 불충분할 경우에 663필드와 664 필드에서 참조표목과 함께 설명문을 기술한다.

현행 전거레코드는 전거표목의 표준형식을 결정하고 그 정보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표목의 선정을 지원하고, 참조를 통해서 목록의 집중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전거과정에서는 전거표목의 선정보다는 모든 접근점에 대한 연결기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와는 달리, 이름이나 서명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동일 표목의 상이한 형식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전거제어란 목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이한 형식의 표목간을 연결하는 기능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전거표목의 선정 대신, 특정 접근점에 대한 참조와 그들간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설명참조를 확장하고 관계참조를 추가한 참조시스템의 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서지적 관계유형과 상호참조

#### 3. 1 서지적 관계유형

특정 자료는 다른 자료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서지적 관계란 둘 이상의 자료나 저작이 서지적 특성을 공유할 때 형성되며, 원하는 자료를 도서관목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경로로써, 관련된 저작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Tillett 1987, 209).

목록에서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지적 관계유형은 UNIMARC의 서지적 관계유형(IFLA 1980, 58), 릴레트의 서지적 관계유형, 베르다의 서지적 관계유형(Bertha 1992, 215-216)이 있다.

이러한 관계유형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릴레트가 제시한 7가지 서지적 관계유형이 UNIMARC에서나 베르다가 제시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지적 관계유형과 이러한 관계를 연결시키는 방법과 장치를 영미목록규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가지 범주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

시하였다.

- 1) 대등관계: 저작의 내용과 원저자의 변경 없이, 동일 저작의 동일한 표현매체의 복본간이나 원자료와 그 재쇄본간의 관계
- 2) 파생관계: 특정 서지자료와 동일 자료에 근거한 개정본간의 관계
- 3) 기술관계: 특정 자료와 그 서평간의 관계로서, 기술이나 비평서, 주석서 등
- 4) 부분-전체(또는 전체-부분)관계: 계층관계라고도 하며, 서지적 자료 또는 저작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가 속한 전체 저작간의 관계
- 5) 딸림자료관계: 서지적 자료와 그에 딸린 서지적 자료간의 관계
- 6) 전후관계: 선행자료와 후속자료와의 관계(표제가 변경된 연속간행물 등)
- 7) 특성공유관계: 특정 자료가 다른 자료와 공유하는 성질관계

### 3. 2 서지적 관계유형의 연결장치

참조가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틸레트의 서지적 관계유형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서지적 관계는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표목과 기술요소를 수단으로 관련 저작을 연결하고 있다. 반면에, 상호참조는 특정 접근점의 이형(異形)들간의 관계로, 특정 저작의 기술요소 중에서 주로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저자나 서명의 상이한 형식간을 연결한다. 따라서 모든 서지적 관계유형에 상호참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목록규칙으로는 서지적 관계유형을 완벽하게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참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면 미래의 연결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틸레트의 서지적 관계유형 분석결과

관계유형	정의	저작유형	연결장치
대등관계	복본이나 내용과 저자가 변경되지 않은 복제물과의 관계	복본, 복사본, 영인본, 재쇄본, 축쇄본, 사진복제, 마이크로복제	대시기입, 주기, 통일서명
파생관계	특정저작과 특정저작을 기초로 전부나 일부를 수정한 저작과의 관계	판사항 변경, 번역판, 개요, 초록, 요약, 개작서, 문학형식 변경, 자의번역서, 편작곡, 모방작법, 희작시	참조, 대시기입, 판사항, 주기, 통일서명, 주제명표목, 기본저록, 부출저록
기술관계	특정저작을 서술, 비평, 평가, 서평한 저작과의 관계	서평, 평론서, 해제판, 사례집, 주석서, 비평서	기본저록, 부출저록, 주기, 주제명표목
부분-전체관계	특정저작의 구성요소 부분과, 그것의 전체저작과의 관계	단행본과 각장, 전집과 각권, 총서와 하위총서, 저널과 저널기사	내용주기, 대시기입, 부출저록, 부출저록, 다단계기술, 통일서명, 설명참조
딸림자료관계	특정저작과 부자료와의 관계	보유, 부록, 첨부된 지도나 화집	딸림자료표시, 주기, 대시기입, 다단계기술
전후관계	특정저작과 순차 또는 전후관계	단행본의 속편, 총서, 연속간행물	주기, 부출저록, 통일서명

## 4. 참조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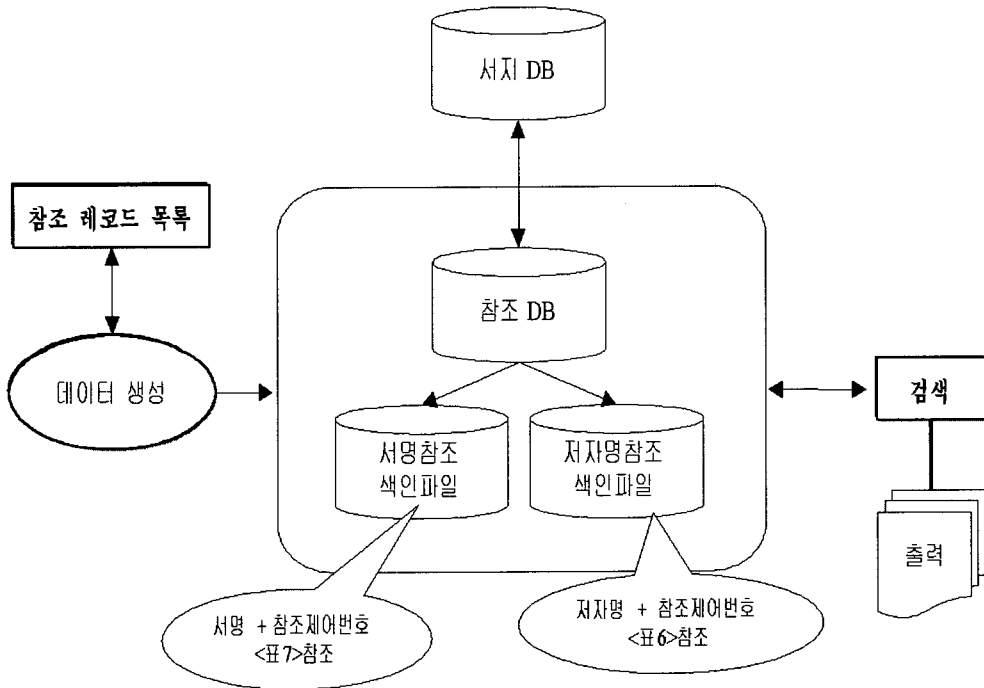
전산환경에서 목록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지적 관계 유형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것을 목록구조에 통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장치의 개발의 일환으로 참조레코드 형식을 개발하여 참조를 통해 상이한 접근점을 연결하고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참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참조시스템은 참조레코드 형식에 의한 참조레코드 생성과 참조데이터베이스 생성, 서지정보검색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참조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 4. 1 참조레코드 형식

참조레코드는 동일한 개인명이나 단체명, 서명의 모든 상이한 형식들을 동일한 접근점으로 처리함으로써 전거표목이나 보라참조, 도보라참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서지레코드와 참조레코드를 연결하여 모든 관련 저작을 집중하고, 관계참조를 추가하여 그 저작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저작을 양방향으로 상호연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 4. 1. 1 설계원칙

참조레코드는 개인명과 단체명, 회의명에 관한 저자명참조필드와 서명과 서지적 관계유



<그림 1> 참조시스템 구성도



형에 관한 서명 및 관계참조필드를 포함한다.

첫째, 전거표목필드와 보라참조필드, 도보라참조필드를 구분하지 않고 대등한 접근점으로 처리하기 위해 참조표목으로 통일하여 참조레코드의 참조표목필드(1XX 필드)에 적용한다.

둘째, 특정 저작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개인명이나 단체명, 회의명의 모든 형식을 동등한 접근점으로 저자명참조표목필드(100 개인명, 110 단체명, 111 회의명)에 기술하되, 이형(異形)들간의 관계를 상세하게 규명할 경우가 발생하면 설명참조를 통해 관계를 기술한다. 또한 서명의 모든 상이한 형식은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간의 관계 표현을 포함하는 서명 및 관계참조를 통해 상이한 형식의 서명을 연결하고, 아울러 관련 저작간의 서지적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서명 및 관계참조는 참조레코드에서 직접적인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필드를 관계유형별로 재구분하여 각각의 관계유형에서 포함하고 있는 관계를 관계유형별 필드에서 규정한다.

대등관계의 자료에서는 서명저자사항이 거의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대등관계에 있는 저작들의 데이터요소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이형표목이 출현할 경우 130 필드에 기술한다. 전체적으로 1XX 저자명참조표목 및 대등관계참조필드, 23X 파생관계참조필드, 33X 기술관계참조필드, 43X 부분-전체관계참조필드, 53X 딸림자료관계참조필드, 63X 전후관계참조필드, 666 설명참조필드로 재구분한다.

넷째, 각각의 접근점과 연결하는 포인터로

참조제어번호를 제공한다.

#### 4. 1. 2 참조레코드의 구조

참조레코드의 구조는 서지레코드나 전거레코드와 마찬가지로 MARC 형식으로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로 구성된다. 표시기호, 지시기호, 식별기호는 기본적으로 전거레코드에서 규정하는 것을 따르되 참조레코드의 속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한다.

##### 1) 리더

자수위치 06 레코드 형태에 1자리 영문자 r 로 표시하여 참조레코드임을 표시한다.

r - 참조레코드

##### 2) 디렉토리

서지 데이터형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00X 제어필드: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001 제어번호

참조레코드의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 005 최종처리일시

##### 008 부호화정보필드

##### 008/00-05(입력일자)

008/06-08(미정의)는 정의를 보류함으로써 빈칸(b)으로 표시한다.

##### 008/09 레코드 종류

사용부호

a 저자명참조레코드

b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

n 적용불가(혼합레코드)

008/10-39(미정의): 빈칸()

- 4) 0X0-09X 숫자 및 부호: 미정의
- 5) 1XX 참조표목 및 대등관계참조필드[반복]  
특정 저작의 접근점으로서 개인명, 지명과

단체명, 회의명에서 상이한 형식이 출현할 경우 해당 필드에 반복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서지적 관계유형이 대등관계인 관련 저작들의 서명과 관계어를 해당필드에 반복하여 기술한다. <표 3>은 이들 필드의 구조이다.

<표 3> 1XX 참조표목 및 대등관계참조필드

태그	필드명	지시기호		식별기호	
		제1	제2	기호	설명
100	개인명	0 성으로 시작되지 않는 이름 1 단일성 2 복잡성 3 가족명 4 묘호, 시호, 봉호, 추호, 궁호	미정의	▼a ▼b ▼c ▼d ▼f ▼g ▼h	개인명(성과 이름)[반복불가] 이름(명)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지칭하는 숫자[반복불가]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반복] 생물년[반복불가] 역조(歷朝)[반복불가] 한국 및 중국의 세계(世系)[반복불가] 한자[반복불가]
110	단체명	미정의	미정의	▼a ▼b ▼g ▼k	기본요소(체계상 상위기관명 또는특수표목으로서의 첫 번째 요소)[반복불가] 하위기관[반복] 기타 정보[반복불가] 형식부표목[반복]
111	회의명	미정의	미정의	▼a ▼q ▼d ▼c ▼e ▼n ▼k ▼p	회의명이나 관할구역명[반복불가]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반복불가] 회의 일자[반복불가] 회의 장소[반복불가] 하위기관-분과[반복불가] 회의분과/회차 번호[반복] 형식부표목[반복] 회의분과/회차명[반복]
130	대등 관계 참조	미정의	미정의	▼a ▼n ▼p ▼l ▼f ▼k ▼h ▼m ▼g	서명[반복불가] 저작의 권호[반복] 저작의 부분서명[반복] 저작의 언어[반복불가] 발행자, 발행년 형식부표목[반복] 매체 한정어 음악작품 연주매체 대등관계어[반복불가] 대등관계어 : 복사본, 영인본, 축쇄판, 사진복제, 마이크로복제, CD복제 등을 포함.

〈표 4〉 23X 파생관계참조

태그	관계어필드명	지시기호		식별기호	
		제1	제2	기호	설명
230	파생관계어가 없는 서명[반복] 파생관계에 대한 원(본)서명 기술	미정의		▽a	서명[반복불가]
231	번역서[반복]			▽n	저작의 권호[반복]
232	개작서[반복]			▽p	저작의 부분서명[반복]
233	요약서(개요, 초록 포함)[반복]			▽d	저작의 저자명[반복]
234	편곡[반복]			▽l	저작의 언어[반복불가]
235	판의 변경[반복]			▽f	발행자, 발행년
236	각색(문학형식변경, 모방작법, 회작시 포함)[반복]			▽k	형식부표목[반복]
239	임의관계어[반복]			▽s	판(version)
				▽h	매체 한정어
		▽m	음악작품 연주매체		
		▽g	기타 정보[반복]		
				요약, 개요, 초록, 문학형식변경, 모방작법, 회작시, 원서명, 원저자명 등을 포함.	

6) 23X 파생관계참조[반복]

파생관계에서는 원저작의 지적 내용이나 형식, 또는 주제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서명이나 저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표 4〉는 그 구조로서,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는 23X 필드에서 공통으로 적용한다.

7) 33X 기술관계참조필드[반복]

기술관계는 특정 저작과 그 해설서, 비평서, 해제, 주석서, 서평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자와 서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는 23X 파생관계참조와 동일하고 관계어필드는 다음과 같다.

330 관계어 없음[반복불가]

기술관계에 대한 원(본)서명

331 서평[반복]

332 평론[반복]

333 비평[반복]

334 해제[반복]

335 주석[반복]

336 연구(사례연구 포함)[반복]

339 임의관계어[반복]

8) 43X 부분-전체관계참조[반복]

부분-전체관계는 자료 또는 저작의 구성요소와 이들 요소가 수록된 저작간의 관계로서 특정 저작의 지적내용이나 형식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저자나 서명은 변경되지 않는다. 특정 저작의 상위저작과 하위저작간의 관계를 제공한다.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는 23X 파생관계참조와 동일하고 관계어필드는 다음과 같다.

430 관계어 없음[반복]

431 단행본과 각장[반복]

433 총서와 각권[반복]

435 저널과 기사[반복]

439 임의관계어[반복]

9) 53X 딸림자료관계필드[반복]

딸림자료관계에서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는 23X 파생관계참조와 동일하고 관계어필드는 다음과 같다.

- 530 관계어 없음[반복]
- 531 모체[반복불가]
- 532 보유판[반복]
- 533 부록[반복]
- 534 첨부된 자료[반복]
- 539 임의관계어[반복]

10) 63X 전후관계참조필드[반복]

전후관계에서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는 23X 파생관계참조와 동일하고 관계어필드는 다음과 같다.

- 630 관계어 없음[반복]
- 631 단행본 전편[반복]
- 632 단행본 후편(속편 포함)[반복]
- 633 연속간행물 선행지[반복]
- 634 연속간행물 후속지[반복]
- 639 임의관계어[반복]

11) 666 설명참조필드

참조필드와 관계참조필드에 기술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설명참조를 사용하여 보완한다. 그 구조는 <표 5>와 같다.

4. 1. 3 참조레코드의 생성

참조레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참조레코드에 기술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생성하거나, 둘째, 특정 저자의 상이한 이름이나 특정 저작의 상이한 서명이 출현하면 서지적 관계를 규명하여 참조레코드를 작성하는데 이미 기존의 참조레코드가 존재한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고 추가만 한다. 이때 동일 저자나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은 하나의 유일한 참조레코드에 집중된다.

다음은 관련 저작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참조형식에 따라 참조레코드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생성데이터를 출력한 사례이다.

1) 저자명참조레코드 작성 사례

현재 국내서의 표제면에 표기된 William Shakespeare의 상이한 이름 형식은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윌리엄 셰익스피어
- W. 셰익스피어
- W. 셰익스피어
- 셰익스피어
- 셰익스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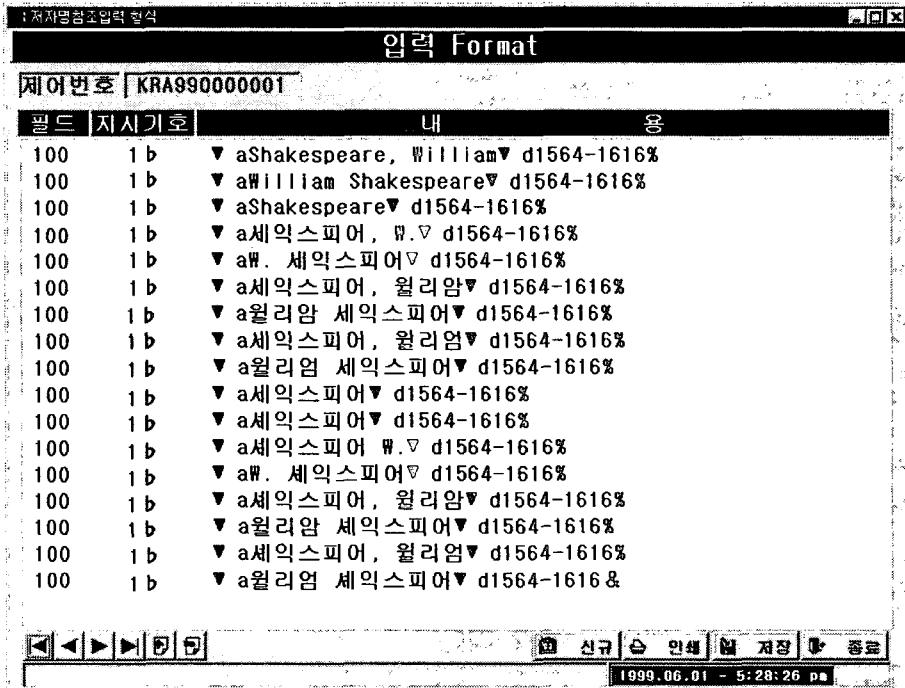
William Shakespeare

Shakespeare 등이다.

이를 참조레코드로 작성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5> 666 설명참조필드

태그	필드명	지시기호		식별기호	
		제1	제2	기호	설명
666	설명참조	미정의		▼a	설명문



〈그림 2〉 저자명참조레코드 작성 사례

2)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 작성 사례  
 1989년에 발행된 ‘안정효의 하얀전쟁’은 이미 ‘실천문학’의 1985년 봄호와 여름호에 연재된 소설로, ‘실천문학’이 폐간·복간되는 과정에서 연재가 중단되었으며, 1985년 11월에 ‘실천문학사’에서 ‘전쟁과 도시’로 발행되었다. 1989년 미국의 ‘소호출판사(Soho Press)’에서 ‘White Badge’라는 영문판이 발행되었으며, 1992년 영화로 제작되었고, 이 영화는 곧 이어 비디오와 CD로도 제작되었다. 1991-92년 ‘시사토픽’에 ‘전쟁의 숲’이 연재되었고, 1993년 ‘하얀전쟁’ 제2부로 발간되었다. 1993년 ‘하얀전쟁’은 다시 3부작으로 개편되면서 ‘제1부 전쟁과 도시’, ‘제2부 전쟁의 숲’, ‘제3부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1993년 金利光에 의해 ‘ホ

ワイト・バッツ’라는 제목으로 일본 ‘光文社’에서 일어판이 출간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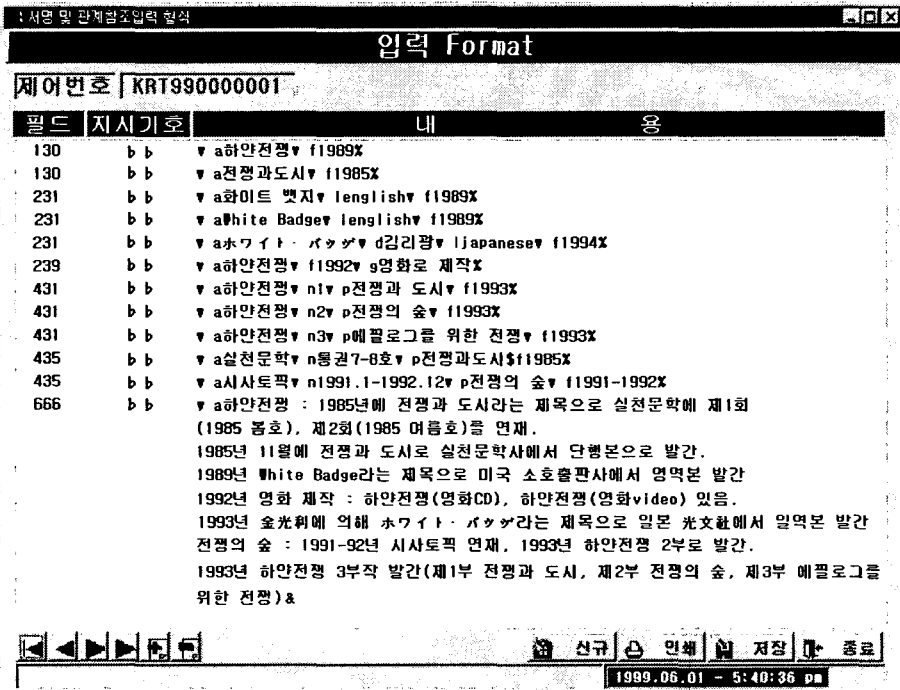
하얀전쟁에 대한 참조레코드를 작성하면 〈그림 3〉과 같다.

#### 4. 2 참조DB의 생성

참조레코드 형식의 개발로 전거DB 대신 독립된 참조DB를 생성한다. 참조DB는 저자에 대한 저자명참조DB와 서명과 서지적 관계유형에 대한 서명 및 관계참조DB로 구분하여 생성하고, 서지DB와 직접 연결되는 참조시스템을 구축한다.

##### 4. 2. 1 저자명참조DB

저자명참조DB는 동일 저자의 모든 상이한



<그림 3>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 작성 사례

<표 6> 저자명참조색인파일 구조

저자명참조색인파일	
저자명	저자명참조제어번호
저자명1	KRA990000001
저자명2	KRA990000002
저자명3	KRA990000001
저자명4	KRA990000001
저자명5	KRA990000002
저자명6	KRA990000003
저자명7	KRA990000001
저자명8	KRA990000003
.	.
.	.
.	.
.	.
.	.
저자명n	KRA990000001

<표 7> 서명참조색인파일구조

서명참조색인파일	
서명	서명참조제어번호
서명1	KRT990000001
서명2	KRT990000002
서명3	KRT990000001
서명4	KRT990000001
서명5	KRT990000002
서명6	KRT990000003
서명7	KRT990000001
서명8	KRT990000003
.	.
.	.
.	.
.	.
.	.
서명n	KRT990000001

형식들을 기술한 저자명참조레코드의 집합으로, 저자명참조색인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검색시 사용된 저자명과 저자명참조DB를 연결하여 동일 저자의 모든 상이한 형식을 동등한 접근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저자명참조DB는 저자명참조제어번호와 저자명참조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로 구성된다.

저자명참조색인파일은 저자명참조DB에 포함된 모든 저자에 대한 색인파일로, 저자명참조레코드에 기술된 저자명과 저자명참조레코드제어번호로 구성되는데, 동일한 레코드내의 저자의 모든 상이한 형식은 동일한 참조제어번호를 수반한다. 저자명참조색인파일의 구조는 <표 6>과 같으며, 저자명1과 저자명3, 저자명4, 저자명7, 저자명n과, 저자명2와 저자명5, 저자명6과 저자명8은 동일한 참조레코드의 구성요소임을 표현하고 있다.

#### 4. 2. 2 서명 및 관계참조DB

서명 및 관계참조DB는 특정 저작의 서명의 모든 상이한 형식과 서지적 관계유형을 기술한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의 집합으로, 서명참조색인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검색시 사용된 서명과 서명 및 관계참조DB를 연결하여 특정 서명의 모든 상이한 형식을 동등한 접근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저작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서명 및 관계참조DB는 서명참조제어번호와 서명참조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로 구성된다.

서명참조색인파일은 서명 및 관계참조DB에 포함된 모든 서명들에 대한 색인파일로,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에 기술된 각각의 서명과 서명참조레코드제어번호로 구성되는데, 동

일한 레코드내의 서명의 모든 상이한 형식은 동일한 참조제어번호를 수반한다. 서명참조색인파일의 구조는 <표 7>과 같으며, 서명1과 서명3, 서명4, 서명7, 서명n과, 서명2와 서명5, 서명6과 서명8은 동일한 참조레코드의 구성요소임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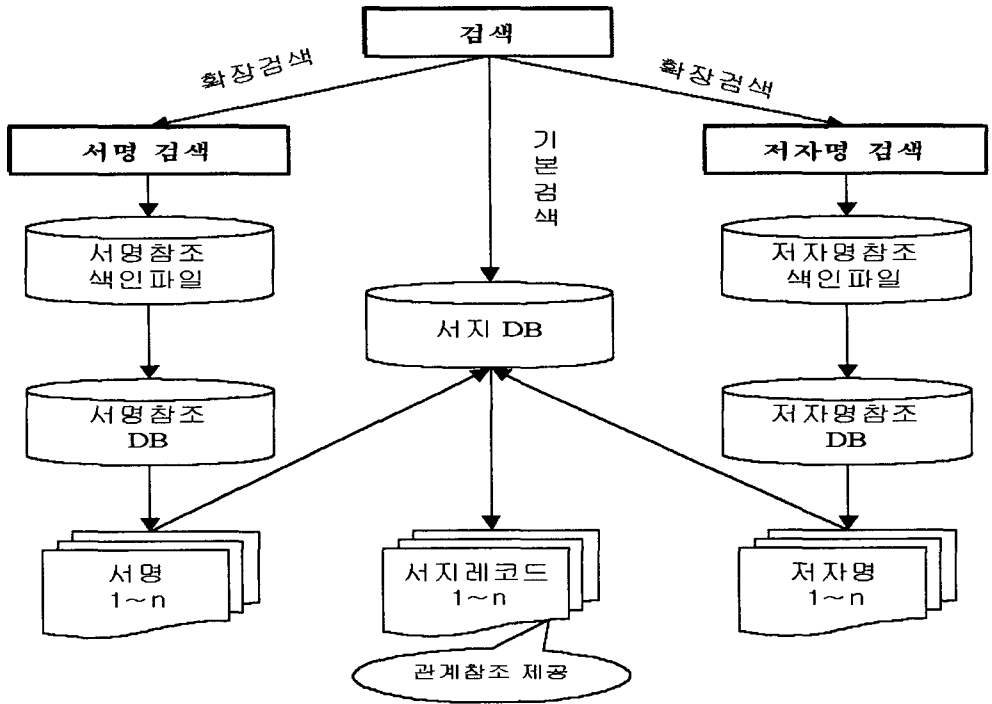
#### 4. 3 참조시스템을 통한 검색과정

참조레코드는 특정 저자나 서명에 대한 모든 이형(異形)을 한 팀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각 성원들은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접근점으로 기능하며, 이용자가 어떤 접근점인지 먼저 검색을 시작하면 다른 모든 접근점들도 동시에 검색되는 시스템이다. <그림 4>는 참조시스템을 통한 검색과정이다.

1) 검색명령을 내리면 기본검색과 확장검색을 선택한다. 기본검색은 특정 저자나 서명만을 접근점으로 직접 서지DB를 탐색하여 특정 저자나 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게 된다.

2) 확장검색을 선택하면 접근점은 먼저 참조색인파일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 색인파일에 있는 접근점은 제어번호를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어번호는 다른 접근점과의 연결 포인트로서, 그 접근점이 기술된 참조레코드의 번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참조레코드는 하나의 제어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색인파일에서 각각의 접근점은 검색어와 제어번호로 구성된다.

3) 접근점의 제어번호를 통해 해당 접근점이 속한 팀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특정 저자나 서명의 모든 이형(異形)이 포함된다



<그림 4> 참조시스템을 통한 검색과정

: 서명 및 관계참조 출력	
출력 형식	
간략정보	내용
대등관계	하안전쟁(변경서명) 전쟁과도시(처음서명)
파생관계	화이트 배지(번역서명) White Badge(영역서명) ホワイト・バッジ(일역서명)
부분-전체관계	하안전쟁1 : 전쟁과 도시 하안전쟁2 : 전쟁의 숲 하안전쟁3 :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 실천문학 통권7-8호 : 전쟁과도시(연재) 시사토픽 1991.1 - 1992.12 : 전쟁의 숲(연재)
설명참조	하안전쟁 : 1985년에 전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실천문학에 제1회(1985 봄호), 제2회(1985 여름호)를 연재. 1985년 11월에 전쟁과 도시로 실천문학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 1989년 White Badge라는 제목으로 미국 소호출판사에서 영역본 발간. 1992년 영화 제작 : 하안전쟁(영화CD), 하안전쟁(영화video) 있음. 1993년 金利光에 의해 화이트・バッジ라는 제목으로 일본 光文社에서 일역본 발간. 전쟁의 숲 : 1991-92년 시사토픽 연재, 1993년 하안전쟁 2부로 발간. 1993년 하안전쟁 3부작 발간(제1부 전쟁과 도시, 제2부 전쟁의 숲, 제3부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

<그림 5>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 출력 사례



4) 이들 성원은 각각의 형식은 모두 다르지만 동일한 접근점으로서, 이용자가 접근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접근점은 검색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지DB의 해당 레코드를 검색하여 관련레코드를 한 곳에 집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저자나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를 통해 서지레코드에는 관련 저작들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검색결과로 제시하게 된다. 특정 저작이 다른 저작과 서지적 관계가 있으면, 해당 서지레코드에 참조레코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주기사항에 참조제어번호를 기술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마련한다. 서명 및 관계참조레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관련된 저작의 서지적 관계유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는 특정 저작이 다양한 서지적 관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먼저 관계참조를 통해 서지적 관계를 표현하고, 설명참조를 통해 상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저작을 한곳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서지적 관계를 제시한다.

## 5. 결 론

현행 선거제어시스템은 선거표목의 형식을 결정하고, 참조를 통해 상이한 형식의 표목간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선거표목과 상호참조, 표목과 상호참조에 대한 정보원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선거시스템에서는 선거표목의 선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됨은 물론, 관련 저작의 유형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현재와 같

은 전산환경에서는 모든 표목이 대등한 접근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 참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서지적 관계유형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관련 저작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모든 이름과 서명을 참조의 기능으로 수용하여, 특정 접근점과 그 이형(異形)에 대한 참조와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참조를 제공하고, 설명참조를 확장함으로써 참조레코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조레코드는 다음과 같은 성질과 구조를 지닌다.

1) 특정 저자명이나 특정 서명에 이형(異形)이 출현하거나 관련 저작이 발간되면, 단지 하나의 유일한 참조레코드만을 생성한다. 참조레코드는 기존의 전거레코드를 사용하되 전거표목을 채택하는 대신 관계참조와 같이 참조의 기능을 확장하여 참조레코드로 활용한다.

2) 동일 인명이나 단체명, 서명의 모든 이형(異形)들은 동일한 접근점으로 처리하고, 현재와 같은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 대신, 모든 형식의 이름을 전거표목(1XX 필드)과 보라참조(4XX 필드), 도보라참조(5XX 필드)를 구분하지 않고 참조레코드 1XX 필드에 적용한다.

3)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요소는 모든 형식을 동등한 값으로 1XX 필드에 기술하되, 이형(異形)의 접근점들간의 관계를 규명할 경우가 발생하면 전거레코드의 일반설명참조-이름(666 필드)을 적용하여 접근점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관련된 저작간의 관계를 규명할 경우가 발생하면 서명 및 관계참조를 통하여

서지적 관계를 제시한다.

4) 서명 및 관계참조는 참조레코드에서 직접적인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필드를 관계유형별로 재구분하여 각각의 관계유형에서 포함하고 있는 관계어를 관계유형별 필드에서 규정한다.

대등관계의 자료에서는 대등관계를 이루고 있는 저작들의 데이터요소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이형표목이 출현할 경

우 130 필드에 기술한다. 전체적으로 1XX 저자명참조표목 및 대등관계참조필드, 23X 파생관계참조필드, 33X 기술관계참조필드, 43X 부분-전체관계참조필드, 53X 딸림자료관계참조필드, 63X 전후관계참조필드, 666 설명참조필드로 재구분한다.

5) 각각의 접근점과 연결되는 포인터로 참조제어번호를 제공한다.

## 참 고 문 헌

- 김태수. 1995.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2(2): 9-35.
- 志村尙夫. 1982. "資料組織論における連結語としての参照の意義". 圖短大紀, 6: 85-103.
- 최석두. 1993. "無典據시스템에 관한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 233-26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08. *Anglo-American Code*. Chicago: ALA.
- \_\_\_\_\_. 1941. *ALA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 preliminary 2nd ed.* Chicago: ALA.
- \_\_\_\_\_. 1949.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2nd ed.* Chicago: ALA.
- \_\_\_\_\_. 1967.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 \_\_\_\_\_.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 Chicago: ALA.
- Bertha, Eva. 1992. "Inter- and Intrabibliographical Relationships: a Concept for a Hypercatalog". In *Opportunity 2000: Understanding and Serving Users in an Electronic Library*, Edited by Ahmed H. Helal and Joachim W. Weiss. Essen: Universit tsbibliothek Essen.
- Brault, Nancy. 1972. *The Great Debate on Panizzi's Rules in 1847-1849: the Issues Discussed*. Los Angeles: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 & The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 Bregzis, Ritvars. 1982. "The Syndetic

- Structure of the Catalog". In *Authority Control: The Key to Tomorrow's Catalog: Proceedings of the 1979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Institutes*, Edited by Mary W. Ghikas. Phoenix, Oriz: Oryx Press.
- Carpenter, Michael and Elaine Svenonius ed. 1985. *Foundations of Cataloging: A Sourcebook*.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Clack, Doris Hargrett. 1990. *Authority Control: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nstructions*. Chicago: ALA.
- Cutter, Charles Ammi. 1904.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IFLA. 1980. *UNIMARC: Universal MARC Forma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 Library of Congress. 1993. *USMARC Format for Authority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Washington, D.C.: LC.
- Norris, Dorothy May. 1939.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1100-1850: With an Introductory Survey of Ancient Times*. London: Grafton & Co.
- Svenonius, Elaine. 1996. "References vs. Added Entries". [1997,11,10] <<http://www.oclc.org/oclc/man/authconf/svenoniu.html>>
- Tillett, Barbara Ann Barn. 1987.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used in Cataloging*.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